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독주하는 中 시장에 해외 자금 유입 늘어
- ◇ (분석)-두 번째 블랙시트 연기, 10 월 31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 ◇ (초점)-수출의 환율 영향력 커져...수출 반등 확인 전까지 달러/원 지지력 강화 예상
- ◇ (초점)-4 월 금통위 관전 포인트..'경기 나빠 추경한다는데 금리인상 문구 유지할까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4 월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로이더/김홍지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39.4	-0.2%	-2.1%	-4.1%	유로	1.1300	0.8%	-1.5%	-4.4%
100엔 대비	1,012.0	0.5%	0.4%	-6.9%	엔	112.02	-0.3%	-2.2%	2.8%
유로 대비	1,281.1	-0.5%	-0.3%	0.2%	위안	6.7190	-0.1%	2.3%	-5.3%
위안 대비	169.09	0.0%	-4.3%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412.30	0.0%	13.2%	-5.6%
코스피	2,233.45	1.1%	9.4%	-17.3%	나스닥	7,984.164	0.6%	20.3%	-3.9%
코스닥	767.85	2.1%	13.6%	-15.4%	S&P500	2,907.41	0.5%	16.0%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42.86	0.6%	13.8%	-16.2%
국고채 3Y	1.733%	-0.2bp	-8.4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769%	-0.8bp	-11.5bp	-45.9bp	미국채 2Y	2.393%	5.0bp	-10.5bp	60.7bp
국고채 10Y	1.881%	-1.2bp	-6.7bp	-52.1bp	미국채 10Y	2.562%	6.3bp	-13.0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63.89	1.3%	40.7%	-24.8%	한국 5Y	31.70	-0.94	-6.36	-13.74
금(현물)	1,290.00	-0.1%	0.6%	-1.5%	일본 5Y	19.63	0.42	-2.16	-3.34
TR상품지수	2,373.65	-0.1%	0.1%	0.0%	중국 5Y	41.49	-0.18	-24.98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더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15일(월)>

- 한은,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산업부, 반도체산업 수출. 통상 간담회 개최

<16일(화)>

- 특이 일정 없음

<17일(수)>

- 산업부,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11:00)

<18일(목)>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책회의(09:00)
- 한은, 수정 경제전망(13:30)

<19일(금)>

- 한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1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15일(월)>

- 미국, 4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21:30)
- 중국, 3월 외국인직접투자(~19일)
- 태국, 베트남 휴장

<16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4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10:30)
- 중국, 3월 주택가격(10:30)
- 미국, 3월 산업생산 (22:15)
- 태국 휴장

<17일(수)>

- 일본, 3월 수출입·무역수지 (08:50)
- 중국, 3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3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중국, 3월 GDP (11:00)
- 일본, 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2월 경상수지(17:00)
- 유로존, 2월 무역수·인플레이션(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무역수지 (21:30)
- 미국, 2월 도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2월 도매판매 (23:00)

<18일(목)>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간(3:00)
- 4월 로이터 단칸 지수(8:00)
- 유로존, 4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17:00)
- 미국, 4월 필라델피아연은 지수(21:30)
- 미국, 3월 소매판매(21:30)
- 미국, 4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22:45)
- 미국, 2월 기업재고(23:00)

<19일(금)>

- 일본,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08:30)
- 미국, 3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홍콩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수급 여건에 주로 영향 받으며 등락을 보일 전망이며, 예상 범위는 **1125-1145** 원이다.
-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주주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배당 규모는 약 **3.6** 조원으로 추산된다. 외인 배당금 역송금 수급이 달러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은 이에 따른 경계를 높일 수 있다.
- 사실상 최근 몇 년간 배당금 역송금 시기에 달러/원 환율은 하방경직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반락했다. 배당금 역송금 수급은 일시적인 재료로 소멸됐기 때문이다.
- 이런 패턴을 볼 때 만약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개선된다면 달러/원 환율은 아래쪽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다.
-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의 1분기 주요 기업 실적이 확인되는 주로 이에 따른 증시 반응이 관건이다. 또한 베이징북과 중국의 1분기 GDP 성장을 및 3월 산업생산 결과도 챙겨봐야 할 변수다.
-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회의도 예정돼 있다. 금리 동결이 폭넓게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을 및 물가상승률 전망 조정 여부와 함께 한은 총재의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존과 같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1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시장내 이견이 없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이슈는 2017년 11월부터 통화정책방향의 결론에 포함됐던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에 대한 문구를 변경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과연 금리 인상 기조를 의미하는 이 문구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문구 유지 여부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이 엇갈린 만큼 문구 변경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렇다 해도 당장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장참가자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금리 레벨이 한 차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이유다. 반면 한은이 기존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경제 전망을 유지할 경우 금리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역시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이후 대미무역흑자가 감소한 만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국내외 증시가 실적 장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주가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채권 매수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분석)-독주하는 中 시장에 해외 자금 유입 늘어

상하이/도쿄 (로이터) - 중국 시장이 독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독일의 산업 및 무역 관련 자료가 침체 신호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세계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부진한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 시장을 개방하려는 중국 규제기관의 노력은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다변화를 모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풍부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케리 크레이그 JP 모간 자산운용 세계시장전략가는 "올해 중반 무렵 중국의 성장이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중국의 부채와 증시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세계 시장은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모건스탠리카피털 인터내셔널 지수(MSCI) 글로벌지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이후 13% 이상 올랐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도비시한 스탠스로 돌아선 것은 최근 몇 주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렸으며 주식 지수를 불안정하게 했다.

중국 시장의 동요는 크지 않다. CSI300 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3분의 1 이상 상승해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커지며 최근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 또한 상승했다.

위험성 높은 대출을 줄이기 위한 수년간의 캠페인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역풍으로 인해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작년 성장을 개선을 위해 실물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선별적 정책 완화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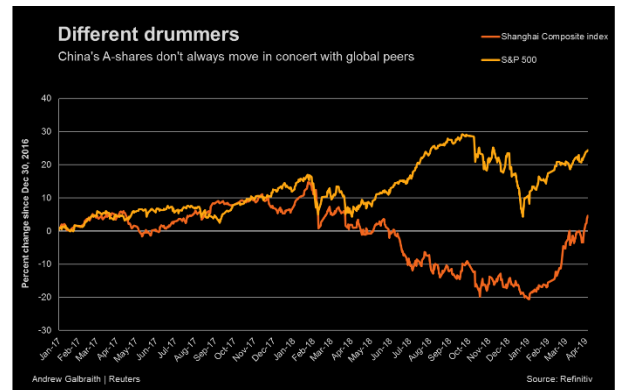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감세, 인프라 투자, 대출 증대와 대출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이 신용 성장 침체를 되살리며 기업 수익 전망을 밝게 했다.

천 롱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완화가 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용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며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더 둔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 후반 성장세가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증시 또한 해외 자금 유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와 클리어링은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중국 증권시장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은 올해 1분기 1250억 위안(186억 달러)를 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세 배 규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제금융협회(IIF)는 중국 A주에 대한 MSCI 지수 편입 비중 확대 발표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 주식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권 성장

세계 지수 변화는 주식 시장을 넘어 확대되었다.

지난 4월 1일 지수 제공업체인 블룸버그 바클레이스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지수에 향후 20개월에 걸쳐 중국 국채와 정책은행 채권을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13조 달러 채권 시장에 수십억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라즈 바자즈 롬바르드 오디에 고정수입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자금의 초기 흐름은 점진적이겠지만 "언젠가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채권은 짧은 평균 만기와 상당한 수익률 프리미엄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이점을 제공한다.

프랜시스 청 웨스트팩 수석 매크로 전략가는 위안화의 상대적 안정성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위안화 표시 자산의 매력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위안은 인도 루피나 한국 원, 말레이시아 루피아 등 지역 통화에 비해 리스크 심리에 덜 민감하며 달러/위안 환율과 중국 국채 간 상관관계 또한 크지 않다"며 "많은 투자자들의 초기 익스포저가 적을 때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 국채를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좋은 자산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 교차 매매 프로그램의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되는 거래량은 2019년 1분기 70% 늘었으며 등록된 투자자 수는 41% 증가했다.

교차 매매 프로그램은 지수 편입으로 작년 12월 거래량의 37%를 차지했던 중국 국채와 정책은행 채권에 관심이 몰려 올해 3월 거래량의 66%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자즈 매니저는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이 2018년 1월 말 최고치에서 거의 1% 하락한 점을 지목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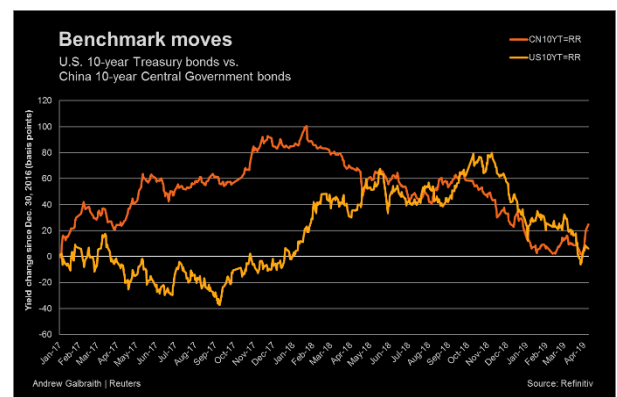
중국 채권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역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을 수 있으며 제한된 위험회피수단과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애버딘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의 로스 허치슨 글로벌 채권 펀드매니저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안전자산 흐름을 제한하는 시장에 대한 경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이그 JP 모간 전략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무엇이 채권을 뒷받침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레이그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채 억제 능력에 만족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시장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미국 재정지출이 계속해서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미국 부채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분석)-두 번째 브렉시트 연기, 10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브뤼셀 (로이터) -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브렉시트를 10월말로 연기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합의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지만, 일부 외교관과 유로존 관리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기가 아닐 것임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는 장기간 연기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에마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10월 31일까지 연기됐다.

이에 마르틴 젤마이어 EU 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은 "#3월 29일은 4월 12일은 10월 31일을 뜻한다"라는 새로운 트위터 태그를 만들었다. 브렉시트 시한이 계속해서 미뤄진 것을 빗댄 것이다.

◆ 그렇다면 10월 31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EU 관리들과 외교관들에 따르면 영국의 브렉시트 진전 상황에 따라 브렉시트는 추가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회담에 참가한 고위 EU 관리들은 "만약 영국이 두 번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6월에도 브렉시트를 다시 연기할 수 있다"며 "연기 기간은 늘어날 수만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리 또한 이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일주일도 정치에서는 긴 시간인데 현재 영국은 29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매우 긴 시간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국이 연기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는 크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27개 유로존 국가들이 다음 연기에 승인할지 또한 확실하지 않다.

◆ 노딜 브렉시트는 바라지 않아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연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크롱 대통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EU에는 가장 피해가 클 노딜 브렉시트를 바라는 의견은 거의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밝혀 왔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또한 앞으로 영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브렉시트 전면 취소라고 밝히며 영국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했다.

◆ 3월 29일 - 4월 12일 - 10월 31일 - ???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며 EU의 정책 결정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유로존 전체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영국으로부터 들었다"며 메이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유로존 회의론자들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가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기보다는 단기간 연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몇몇 EU 국가들 중 하나이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27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현재 EU 회원국들 중 거부권을 혼자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들이 모이게 되면 추가적인 브렉시트 연기를 막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루터 총리는 회담 이후 "아마 이번이 마지막 연장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31일,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하거나, 합의 없이 브렉시트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점)-수출의 환율 영향력 커져...수출 반등 확인 전까지 달러/원 지지력 강화 예상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수출 부진 지속 전망에 원화가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압박은 수출 경기 반등을 확인하기 전까지 당분간 원화 움직임에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원화는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해 모두 약세다. 10일 기준 원화는 달러와 엔화 대비 약 2% 절하된 반면 위안화에 대해서는 무려 5%가량 절하됐다. 반면 유로에 대해서는 1.3% 절하돼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완만한 약세를 나타냈다.

최근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인 데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원인이 크다. 세계 교역과 연결고리가 큰 한국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수출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표 중 하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불과 2년 전 전 세계 경제의 75%가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경기 하강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3월까지 6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고 가격도 더 조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8일 주재한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당분간 녹록지 않은 수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 부진은 수급상 달러 공급을 축소시켜 원화에 단연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외환시장참가자들은 수출업체 매출이 악화되는데 경계를 기울이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외국인 주식 배당금 역송금 수급이 큰 관심을 끈 데는 수출 부진이 맞물린 영향이 크다.

악화된 수출 여건은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정책적 측면도 고려하게 만든다.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낮아졌다 할지라도 원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한 시장참가자는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달러 공급 약화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이 북한 리스크만 아니라면 원화 약세 흐름을 더욱더 느긋하게 관망하려 할 수 있다"면서 원화 추가 약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론 외환당국이 개입 내역까지 공개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 하지만 원화 약세 여건이 전개될 때 당국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호흡이 이전보다 확실히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대목은 원화가 과거처럼 패닉장세를 형성하며 변동성을 대폭 늘릴 여지는 적다는 데 있다. 한국 경제를 비롯한 수출 경기에 대한 경계는 커졌지만 그 외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다.

그렇다보니 완만한 원화 약세가 오히려 외인 자본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김효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가을 이후 한국 증시는 PER, PBR 등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두고 원화 강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작년 말 114.1에서 2월 말 112.7로 낮아졌다.

최근의 원화 약세는 수출제품의 가격을 낮춰주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분의 원화 환산금액을 늘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외인이 최근 한국 주식을 사는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5조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원화의 급격한 약세는 분명 주식 및 채권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소지만 외인 자금 이탈보다는 제품가격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다"고 진단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4월 금통위 관련 포인트..'경기 나빠 추경한
다는데 금리인상 문구 유지할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정부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

화위원회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금통위 회의부터 통화정책 방향 성명서에 포함돼 온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문구를 수정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완화 정도 추가 조정' 문구 유지 시 정부 스탠스와 '엇박자'

금통위는 지난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며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10월까지는 없던 새로운 표현을 삽입했다. 금통위가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다.

금통위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 표현은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11월을 거쳐 올해 2월까지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내내 유지했던 '신중히'라는 표현을 10월에 삭제한 후 한 달 만인 11월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해당 문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이 기존의 의결문 문구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정책 스탠스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7조원을 넘지 않는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세먼지 관련 추경 규모는 많아야 1조원 내외가 한계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장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작년의 1조 3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조원인데다가, 마련된 자금을 투입할 만한 사업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의 목적은 경기 둔화 대책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같은 중대 여

건 변화, 법에 따른 국가 지출 증가로 한정돼 있어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려면 현재 국내 경기가 심각한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걸 국민과 야당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배포한 '최근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투자, 소비 같은 주요 지표가 올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홍부총리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수정' vs '시장 과잉반응 우려로 유지'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기조'를 성명서에 명시할 수 있겠느냐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동결을 공식화한 것이 금통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외은지점의 한 트레이딩헤드는 "이번 금통위는 결국 의결문 문구 수정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경기 안 좋다며 추경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한은이 경기 관찮으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선 향후 양방향의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든지 하는 표현의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은 집행부가 시장의 과잉반응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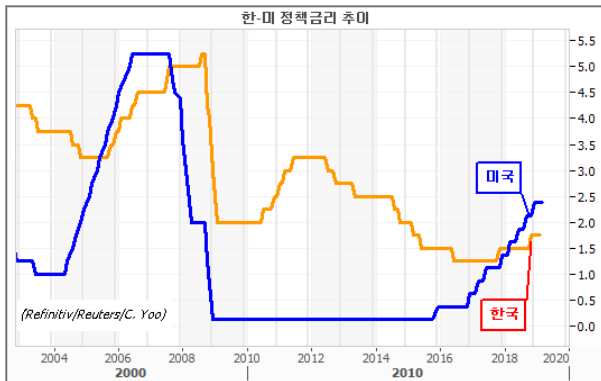
금통위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문구를 수정했을 때 시장참가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한 번 더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이다.

시중은행의 한 이자율딜러는 "금통위 입장에선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완화 정도가 확대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한은 집행부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며 달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문구 수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문구 수정의 열쇠는 금통위 회의 당일에 한은이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과 경기 하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금통위원들의 주장 강도에 달려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통방 성명서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에는 이달 경제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조사국에서 성명서의 초안을 만들겠지만 일부 금통위원들이 강하게 문구 수정을 요구할 때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금통위원이 문구 수정을 강하게 요구한다 해도 어떤 금통위원들은 문구 유지를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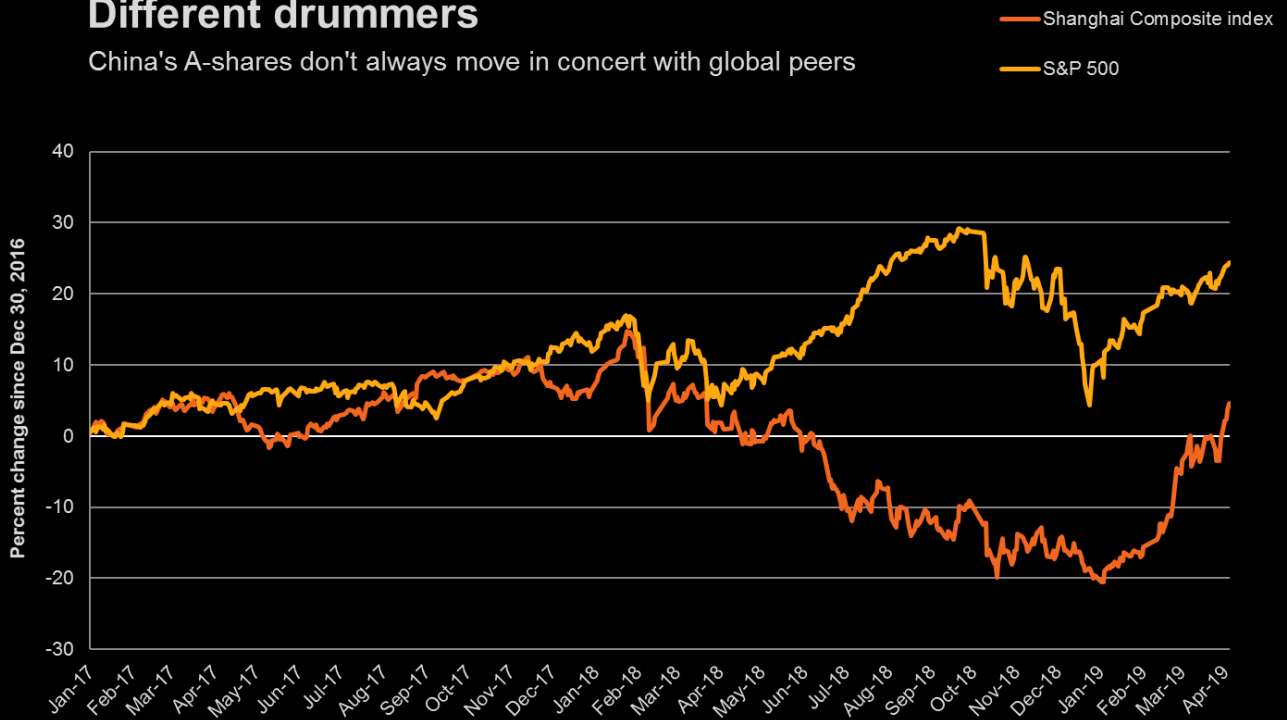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Different drummers

China's A-shares don't always move in concert with global p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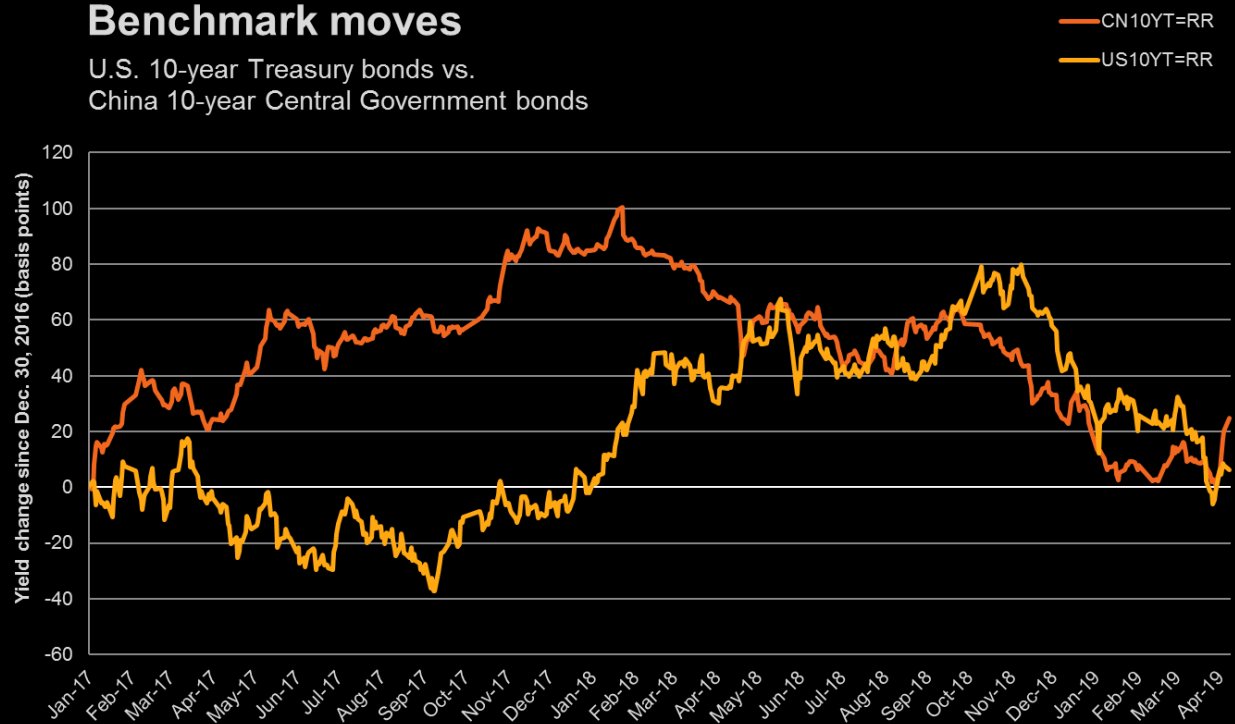
Andrew Galbraith | Reuters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enchmark moves

U.S. 10-year Treasury bonds vs. China 10-year Central Government bonds



Andrew Galbraith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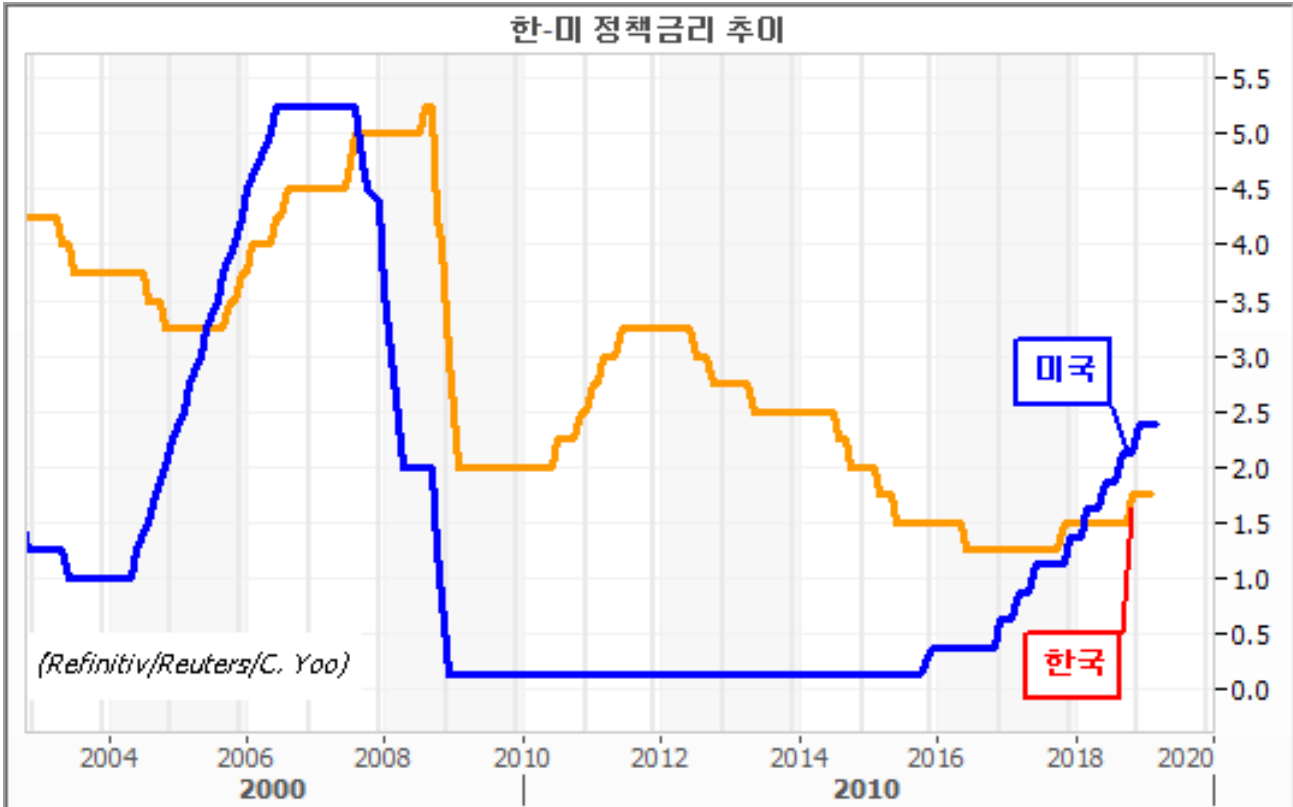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미 정책금리 추이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